

발 간 번 호

2020-013



2020년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우수사례(프로그램)사례집

주최 :  충청남도

주관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0년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미션 | 청소년의 행복을 구현하는 지역사회 성장 플랫폼

비전 | 청소년의 꿈을 디자인하는 청소년 전문기관



베풀 설, 위로할 래, 말을 임의 한자 뜻을 담아 충남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충남지역의 청소년을 위해 **"베풀고 위로하는 일을 맡는 상담센터가 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베풀고 위로하는 일을 맡는 것"**에 우리가 더 설렌다는 의미와 결합하여

설래임이 탄생하였습니다.

설 設 : 베풀다

래 來 : 위로하다

임 任 : 맡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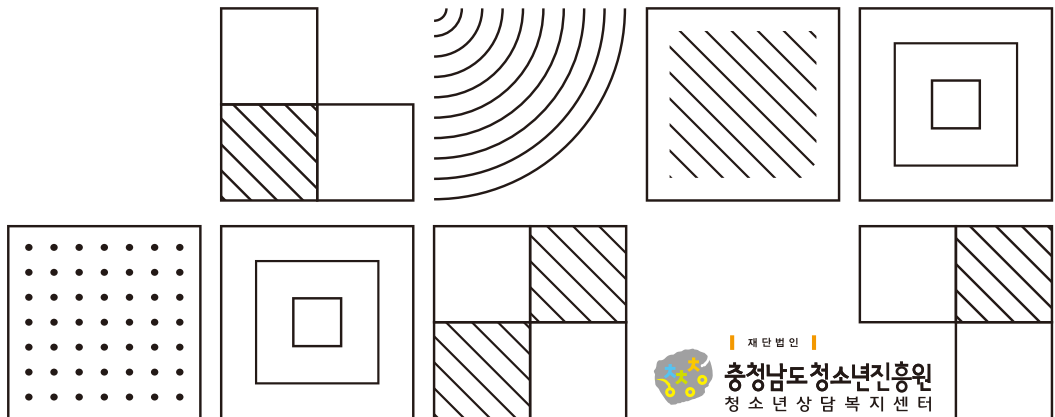
발 간 번 호
2020-013



2020년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우수사례(프로그램)사례집

주최 :  충청남도

주관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간행사

충청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공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중의 하나로서 올해 3번째 우수 사례 공모전과 2020년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게 된 것은 뜻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계획한대로 사업 수행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다각적인 접근을 하면서 기꺼이 수고를 마다하시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학교밖청소년학교밖지원센터에서는 시·군센터와 긴밀한 협력관계에서 공조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심하였고 시·군 센터에서도 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원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충남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모두가 개인적으로는 더 나은 방향에서 자신의 시간을 재조정되고 현실적으로는 미래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도를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사업운영, 특화프로그램, 프로그램개발, 코로나19대응, 청소년 및 멘토수기 부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분야마다 더 나은 사업진행을 위하여 애쓴 결과,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아이디어들과 이를 적용하여 실행한 결과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펼쳐질 것으로 인하여 기대가 됩니다. 충남지역에서만 아니라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충청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의 사례집은 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진정어린 마음과 열정으로 한 해 동안 고생하신 충남도, 시·군센터 종사자분들과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지도자 및 후원자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0년 12월

충청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이순실

목 차

[우수 프로그램 부문]

[대상] 꿈드림 골목식당	11
(홍성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최우수상] 사진과 웹툰으로 꿈을 꾸는 청소년, 픽툰20	19
(서산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우수상] 학교 밖 청소년 창극 “흥부야 놀자”	31
(금산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우수상] 자기계발 프로그램 “서핑의 세계”	39
(태안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장려상] 언택트 꿈드림 1타 강사 빵(드림) 빵(나눔)해요~	47
(아산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장려상] 보령을 폰에 담다 “드림렌즈”	53
(보령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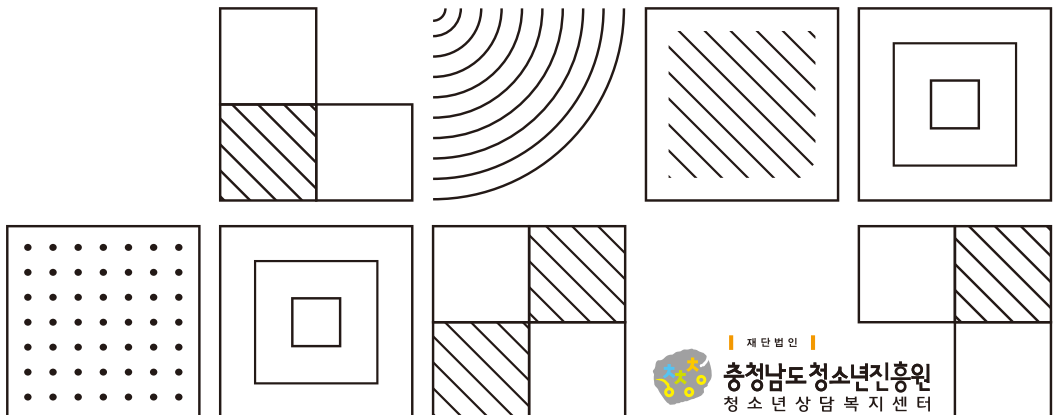
[청소년·멘토 우수사례 부문]

[최우수상] 양아치 그리고 나	63
(보령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우수상] 꿈을 믿어주는 곳, 꿈드림	69
(서천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장려상] 너희들의 꿈 그리고 나의 꿈	75
(공주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장려상] 새로운 나를 찾아서	79
(서산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우수 프로그램 부문

주최 :  충청남도

주관 :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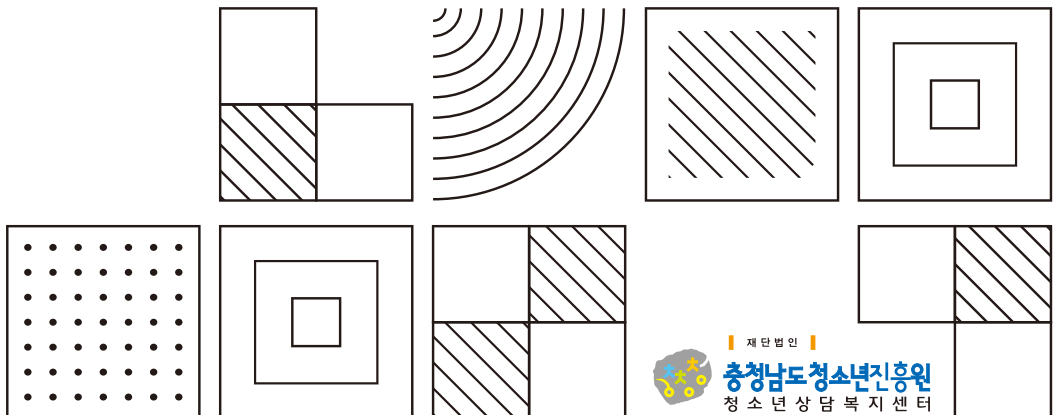
[우수 프로그램 부문]

대 상

코로나19 대응

“꿈드림 골목식당”

홍성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꿈드림 골목식당

홍성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기 간	2020년 5월 ~ 6월
장 소	학교 밖 청소년 각 가정
대 상	학교 밖 청소년

▶ **핵심내용**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꿈드림 센터 휴관에 따라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비대면 프로그램 서비스’를 지원하여 꿈드림 센터 소속감 부여 및 무기력감을 해소하기 위함
- 학교 밖 청소년들이 비대면 요리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무기력감 해소
- 요리에 대한 도전의식 및 성취감 부여
- 학교 밖 청소년들의 불규칙한 식습관 개선 및 꿈드림 센터 관심 증진

▶ **우수사례(프로그램) 선정이유**

-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무기력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비대면 프로그램
-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원활한 사업진행
-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뿐 만 아니라, 보호자들로 부터 긍정적인 피드백

▶ **추진배경**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드림 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비대면으로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느낌
- 코로나19로 인해 꿈드림 센터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전화상담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 상태를 파악
-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워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느낄 수 있는 무기력감 해소 및 불규칙한 생활습관(식습관) 개선 필요
- 꿈드림 센터 휴관으로 인해 꿈드림 활동을 하지 못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소속감이 결여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전화상담 및 비대면 요리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소속감 부여가 이루어짐

▶ **프로그램 주요내용**

- 사업명: 꿈드림 골목식당
- 사업기간: 2020년 5월 ~ 6월
- 대상: 학교 밖 청소년
- 세부일정 및 내용

내용	시기						
	월	화	수	목	금	비고	
식재료 배달							
요리 및 게시물 등록							
강화물 지급							

- 매주 월요일마다 각 주제에 맞는 식재료 구입 및 배송
- 배송 받은 식재료를 통해 자유롭게 만든 음식을 주 1개 이상 센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
- 매 주마다 주제에 맞는 요리 게시물을 올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강화물 지급
 - 1주차 : 따뜻한 음식 or 시원한 음식
 - 2주차 :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음식
 - 3주차 : 나에게 의미 있는 음식

▶ 운영결과







- 총 3주간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요리 프로그램 ‘꿈드림 골목식당’ 진행(학교 밖 청소년 14명 대상 비대면 서비스 지원)
- 평소 요리에 관심 있던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처음 요리를 접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흥미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짐.
- 혼자 살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불규칙한 식습관 개선
- 꿈드림 센터에서 진행하는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증진

▶ 향후계획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됨에 따라 새로운 자기계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지속적인 비대면 지원서비스 제공
-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기존보다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 상황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및 참여 독려

▶ 사업성과

- 운영사진

NO	이름	1주차	2주차	3주차
1	최**			
2	김**			

3	최**	미참여		
4	이**			미참여
5	우**			
6	임**			
7	문**			
8	도**			

9	오**			
10	이**			
11	권**			
12	장**		미참여	미참여
13	인**			
14	박**	미참여		

○ 보도자료

HOME > 홍성신문 > 교육/청소년

비대면 청소년 요리 프로그램 운영

산해지 기자 | 승인 2020.05.17 11:09 | 댓글 0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골목식당' 진행
배송된 식재료로 조리...사진·평가 공유



홍성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하 꿈드림·센터장 조현정)은 지난 4월 13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주간 학교 밖 청소년 14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요리 프로그램인 '꿈드림 골목식당'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꿈드림 센터 이용이 어려워진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무기력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전화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 의사를 조사했으며, 학생들이 직접 요리를 만들고, 그 요리에 대한 평가와 시상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꿈드림 골목식당'은 매주 월요일에 식재료를 구입하여 집 앞으로 배송해 주면 학생들은 제공받은 식재료를 활용해서 요리를 만들어야 된다. 매주 주제와 관련된 요리를 한 가지 이상 계획하여 만든 후 본인이 직접 만든 음식 사진을 센터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꿈드림은 돌봄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교재, 기출문제집,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지원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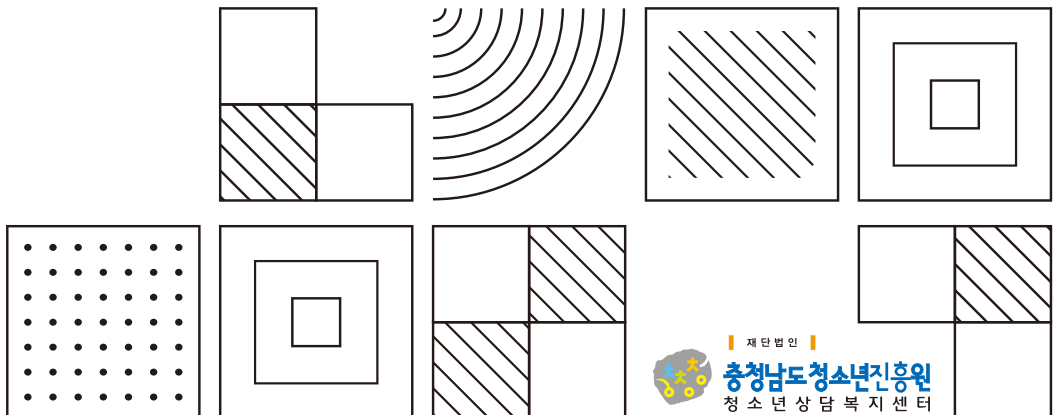
한편 꿈드림은 지속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교육·취업·상담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문의는 홍성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041-642-1388)으로 하면 된다.

[우수 프로그램 부문]

최 우수 상

프로그램 개발

“사진과 웹툰으로 꿈을 꾸는 청소년, 픽툰20”
서산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사진과 웹툰으로 꿈을 꾸는 청소년, 픽툰20

서산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기 간	2020년 5월 ~ 11월
장 소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집단상담실, 서산시 일대
대 상	학교 밖 청소년(6명)

▶ 핵심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장기프로젝트 운영 필요
- 코로나19로 비대면 프로그램 필요성 재기
-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경험을 제공하여 자립 도모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아효능감과 자립동기강화
- 사진, 웹툰 전시 및 판매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 공모전 출품 및 서산시청소년지원센터 캐릭터 제작 예정

▶ 우수사례(프로그램) 선정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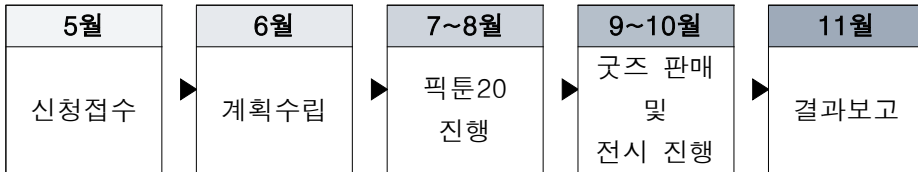
- 기존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에 집중되어 있던 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한 자체 사업 구조화 및 체계화 모델 구축 시도
- 서산시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전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 선정 후 사진과 웹툰에 관심을 보이는 청소년 참여로 프로그램 적극적 호응 유도
- 사진과 웹툰 결과물로 서산 내 전시공간을 활용하여 서산시 꿈드림 홍보 효과
- 코로나19 대응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용이 (Jitsi Meet 화상채팅 활용)
- 향후 수정·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기프로그램 구축 예정

▶ 추진배경

- 단기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 청소년의 결손 된 유대감 및 소속감 형성 욕구를 충족하여 지속적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을 통해 집단 간 친밀감 형성의 기회를 넓힘
- 코로나19로 대면 프로그램 진행의 어려움으로 비대면 강의로 프로그램 전환

▶ 프로그램 주요내용

- 사업명 : 픽툰20
 - ※줄임말: 2020년도 사진과 웹툰으로 꿈을 꾸는 서산시학교밖청소년
- 프로그램 추진 일정



- 픽툰20 사진 프로그램 세부 일정

일 자	주 제	세부내용	진 행
7/11(토)	이론실습	· 스마트폰 카메라 핵심 기능 이해 · 스마트폰으로 필름 감성 사진 촬영 · 구도의 핵심 (리딩 라인) · 촬영 스폿 찾기 (역광, 오픈 셰이드) · 스냅시드로 후보정	외부 강사
7/16(목)	실습	촬영 및 보정 복습	팀원 정선주
7/27(월)	야외실습 인물촬영	· 오픈셰이드 공간에서 인물사진 촬영 · 역광으로 인물사진 촬영 · 리딩라인을 고려한 나의 주제 표현 · 촬영 대상과 배경과의 색 대비 및 구성 요령	외부 강사
8/5(수)	실습	· 촬영 및 보정 복습	팀원 정선주
8/8(토)	실습	· 촬영 및 보정 복습	팀원 정선주

○ 픽툰20 웹툰 프로그램 세부 일정

일 자	주 제	세부내용	진 행
7/29(수)	실습	· 캐릭터 극화체 7~8등신 인체잡기	외부 강사
8/3(월)		· 자신의 그림체에 맞는 근육 이해하여 그리기	
8/10(월)		· 그림체에 맞춰 캐릭터 얼굴 그리기	
8/17(월)		· 옷 주름 및 명암 빛 묘사 배우기	
8/24(월)		· 학습내용 기반 일러스트 및 모션 그래픽	
10/12(월)		· 색감 및 그림체 공부 및 토론	
10/14(수)		· 픽툰 대표 캐릭터 만들기	
10/16(금)		· 픽툰 캐릭터 CG화 1차(프로필 생성)	
10/20(화)		· 픽툰 캐릭터 CG화 2차(일러스트화)	
10/22(목)		· 일러스트를 이용한 픽툰 캐릭터 팬시화	

▶ 운영결과

-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자기효능감 향상
- 전시 및 판매하여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노력
- 비대면 수업 강의의 탄력적 운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 및 참석률
- 전문강사의 체득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설정 및 진로 방향 촉진
- 총 15회기 장기프로그램 제공
- 제13회 대한민국청소년사진공모전 팀 입선, 서산갠성UCC공모전 사진부분 장려상 수상

▶ **향후계획**

- 11월 참여프로그램 마무리 굿즈 제작
- 지역사회 자원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작한 굿즈를 서산시 내 전시 및 판매
-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진로와 연결 될 수 있도록 고입, 대입 진학 노력 예정
- 향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계획 발전 방향 제시

▶ 사업성과

○ 활동사진

· 사진 프로그램



픽툰 20 사진 프로그램 1회기



픽툰 20 사진 프로그램 2회기



픽툰 20 사진 프로그램 3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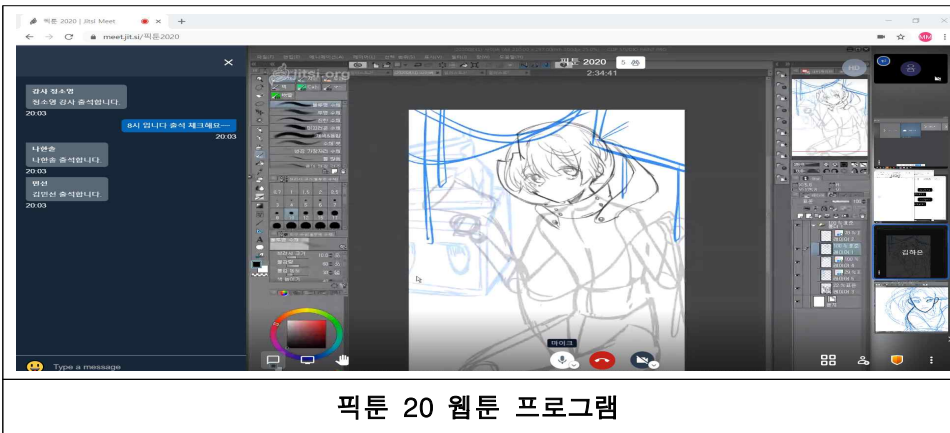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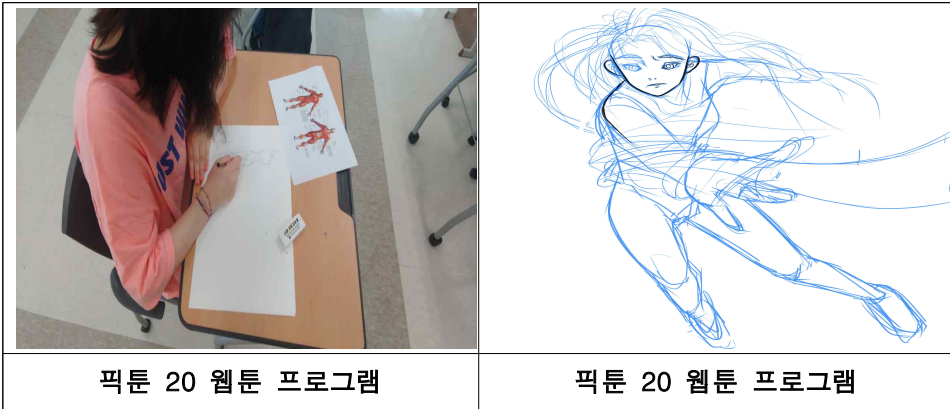


픽툰 20 사진 프로그램 4회기



픽툰 20 사진 프로그램 5회기

· 웹툰 프로그램



▶ 사업성과

○ 사업성과

- 사진 프로그램

제13회 대한민국 청소년 사진공모전 출품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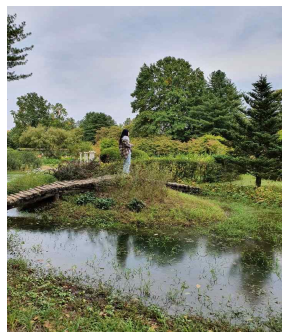


출 품 표		작 품 명	작 품 의 도	작 품 의 주	성 명	학 교 명	연 락 처
작 품 명	마스크를	작 품 의 도	·여름철 일그늘의와 잘 나무에 마스크를 매단 것은 관대하게 지켜줄 기회를 돌려서 시민의 건강을 살려주기 위한 표정 ·마스크를 벗고 웃고 있는 모습의 이유는 불명확한 날씨 그러나 기분 표현	작 품 의 주	성 명	학 교 명	연 락 처
출 품 부	□ 카메라 ■ 핸드폰	출 품 부	□ 우편 ■ 온라인	성 명	학 교 명	연 락 처	연 락 처
출 품 부	□ 우편 ■ 온라인	성 명	학 교 명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성 명	박서진 외 2명	성 명	학 교 명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학 교 명	학교명청소년	학 교 명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010-722-9120(이메일)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010-302-9488(우편)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010-269-8662(휴대폰)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주 소	충청남도 서산시 지평동5길 서산문화복지센터 3층 청소년수련관 3층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명지회동 1층(041-869-3056)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제13회 대한민국청소년사진공모전 '우리의 자연환경' 출품표 및 수상작

작품 제목
무한한 공간, 꺼 너머로!

작품 설명
내가 하고 싶은 일 배우고 싶은 일로 삶을 재우고 싶어 학교 진학을 포기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면서 내 삶은 많이 달라졌다. 코로나19로 학교마저 다니기 어려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 선택은 참 좋은 선택이었다. 친구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에 나는 학교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한다. 꿈드림을 만나면서 나는 여행가가 되고 사진작가가 되고 요리사가 된다. 선생님을하고 친구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동생, 언니들을 만났다. 새로운 사람들을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진해지기도 한다. 또 우리 힘으로 곳조도 만들고 공모전에 나가 상도 받았다. 학교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실지 않은 것으로 하루를 재웠다면 꿈드림을 만난 다음부터 하고 싶은 것으로 재우고 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 사람인지 놀랐다. 때문에 그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다. 난 오늘도 내일도 사진 속에 빠져있 즐거움 것으로 하루를 재우며 걸어갈 것이다.



2020년 제2회 학교 밖 청소년 진로공모전 사진부분 출품







서산갬성UCC공모전 사진부분 장려상 수상작 및 수상사진

· 웹툰 프로그램



○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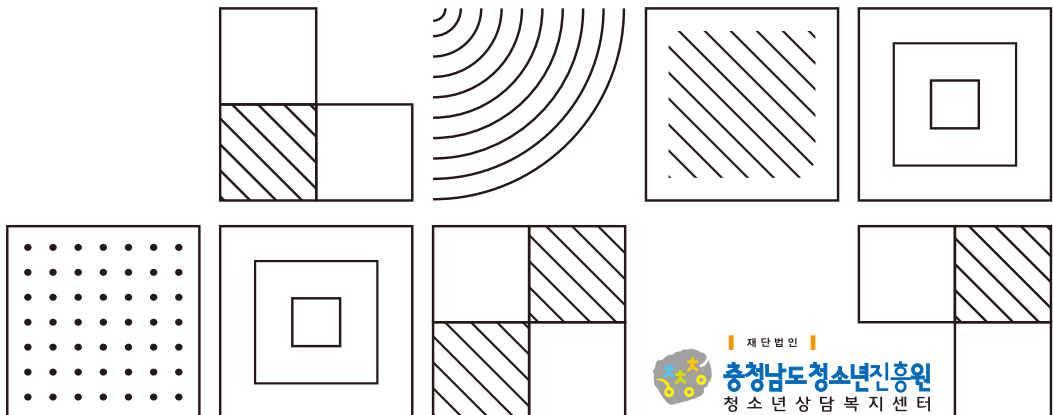
<div data-bbox="227 369 330 411"> <p>충청투데이 HOME > 충남 > 서산시</p> </div> <div data-bbox="227 417 572 444"> <p>서산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픽툰20 진행</p> </div> <div data-bbox="227 455 430 475"> <p>김덕진 기자 승인 2020.08.18 10면</p> </div> <div data-bbox="257 506 607 542"> <p>[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서산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 6명과 함께 7~8월에 걸쳐 '픽툰20'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p> </div> <div data-bbox="257 552 603 589"> <p>'픽툰20'은 '2020년도 사진(찍자)과 웹툰으로 꿈을 꾸는 청소년'이라는 뜻의 합성어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이다.</p> </div> <div data-bbox="257 600 603 653"> <p>연택트 시대에 맞춰 일부 수업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해 참여 청소년의 만족도와 호응도를 높였으며 참여 청소년들은 관내 공모전 참여 준비를 계획하고 있다.</p> </div> <div data-bbox="257 664 607 701"> <p>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어렵다고 생각해서 시도를 안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저도 할 수 있네요"라며 참여의 만족감을 밝혔다.</p> </div> <div data-bbox="257 712 603 765"> <p>한편 꿈드림은 △급식지원 '남남' △고통지원 '세상소통카드' △경고시대 비반 '스마트교실' 등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에 힘쓰고 있다.</p> </div> <div data-bbox="257 778 600 815"> <p>시 거주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전화(041-669-9056)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257 826 470 846"> <p>서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p> </div> <div data-bbox="257 853 443 873"> <p>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div> <div data-bbox="515 884 607 917">  김덕진 기자 </div>	<div data-bbox="703 369 806 411"> <p>서산포스트 HOME > 뉴스 > 사회</p> </div> <div data-bbox="703 417 1093 483"> <p>서산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사진과 웹툰으로 꿈을 꾸는 밖 청소년</p> </div> <div data-bbox="703 492 865 510"> <p>A 서산포스트 승인 2020.08.13 16:39</p> </div> <div data-bbox="703 539 782 558"> <p>픽툰20 진행</p> </div> <div data-bbox="703 573 1105 780">  </div> <div data-bbox="703 792 1107 828"> <p>서산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장 박주영)은 학교 밖 청소년 6명과 함께 7~8월에 걸쳐 픽툰20을 진행하고 있다.</p> </div> <div data-bbox="703 840 1107 913"> <p>픽툰20은 연택트 시대에 맞추어 일부 수업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참여 청소년의 만족도와 호응도를 높였고 참여 청소년들은 서산 내 공모전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지속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밖 청소년 간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고 이후 서산 내 자원을 이용하여 전시 및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p> </div>
<div data-bbox="227 1014 502 1060"> <p>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9월 13일 오후 12:32</p> </div> <div data-bbox="227 1072 493 1118"> <p>#픽툰20 #서산시청소년지원센터_꿈드림</p> </div> <div data-bbox="227 1139 607 1232"> <p>서산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픽툰20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2명이 사진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사진으로 꿈을 꾸는 청소년을 응원해주세요!)</p> </div> <div data-bbox="227 1253 540 1302"> <p>#서산시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p> </div> <div data-bbox="238 1315 444 1363"> <p>서산문화복지센터 9월 12일 오후 5:30</p> </div> <div data-bbox="238 1373 607 1468"> <p>[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2020년 2차 서산시청소년어울림마당[청소년UCC 공모전 시상식 개최]</p> </div> <div data-bbox="238 1489 595 1561"> <p>일 시: 2020. 9. 12.(토) 14시 장 소: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동 2층 공연장</p> </div>	<div data-bbox="735 1014 1009 1060"> <p>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0월 20일 오전 10:00</p> </div> <div data-bbox="735 1068 1000 1136"> <p>#서산시청소년지원센터_꿈드림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픽툰20_웹툰_심화_프로그램</p> </div> <div data-bbox="735 1155 1089 1224"> <p>서산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박주영 센터장)은 10월 12일(월)부터 픽툰20 웹툰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p> </div> <div data-bbox="735 1246 1129 1381"> <p>픽툰20 웹툰 심화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 4명이 지난 기초 프로그램 강의에서 웹 프로그램 다루기 (클립스튜디오, 포토샵)를 거쳐 캐릭터 제작 방법 알기, 제작한 캐릭터 3D로 만들어보기 등 심화 과정을 다루어 비대면 화상 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p> </div> <div data-bbox="735 1402 1060 1495"> <p>그 과정 속에서 탄생한 꿈드림 캐릭터를 소개합니다. 서산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캐릭터 (왼쪽부터 보리, 하리, 두리)</p> </div> <div data-bbox="735 1514 1020 1562"> <p>♥️앞으로도 그려낼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주세요♥️</p> </div>
<p>인터넷 기사 및 SNS 홍보</p>	

[우수 프로그램 부문]

우수상

특화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창극 흥부야 놀자”
금산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 창극 “흥부야 놀자”

금산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기 간	2020년 6월 ~ 10월
장 소	금산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대 상	학교 밖 청소년 및 지도자

▶ 핵심내용

- 학업중단이후 문화예술 체험기회가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창극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통하여 학업중단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제공
-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 감수성 향상
- 창극을 통해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방법과 태도를 배우도록 도움
- 우리의 말과 소리 몸짓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구성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참여 동기 강화
- 발표회 공연을 통해 성취감과 성공경험을 얻고 자신감 향상의 마중물이 됨

▶ 우수사례(프로그램) 선정이유

- 학교밖청소년들이 완벽한 공연보다 조금 부족하고 미완성된 작품이라도 서로 힘을 모으고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 상대방과 교감하며 경험을 나누는 장이 됨
- 의기소침하고 자신감 없던 청소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을 얻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변화된 모습이 상담자로서 뿌듯함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작은 시도와 용기, 도전하려는 마음을 응원하며 노력과 수고를 격려하고자 함
- 참여 청소년 중 한명은 다리부상으로 깁스를 하고 참여하는 등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학교 밖 청소년 특성상 또래친구들과 소통 기회가 적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무기력과 스트레스 해소⇒ 자신감 회복
- 지역적으로 전통과 문화의 고장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리 예술문화를 알고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기회 제공
- 판소리와 연극을 접목한 창극을 통하여 창의적 예술표현 능력 향상
- 창극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상실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 **프로그램 주요내용**

- 세부일정

일 정	세부내용
6/25(목)	·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듣고, 흥부가 박타는 대목을 시나리오로 구상하기 · 흥부가 중에서 돈타령 대목 들어보기
8/21(금)	· 대본읽기, 각 인물별 성격을 파악하여 말과 행동 설정하기 · 돈타령 대목 익히기(장단과 선율)
8/25(화)	· 대본 읽어보고(돌아가면서 경험) 배역정하기, 돈타령 익히기
9/1(화)	· 대본읽기 및 돈타령 대목 복습(장단과 선율), 안무 및 동선 짜기
9/4(금)	· 창극에 어울리는 음악선정하기, 돈타령 대목 익히기
9/8(화)	· 흥부와 놀부 집 배경 및 소품만들기(박), 돈타령 대목 익히기
9/11(금)	· 소품만들기(박속에 넣을 보물 만들기), 안무 및 창 연습
9/15(화)	· 소품만들기(톱과 박씨만들기), 돈타령 대목 복습
9/22(화)	· 안무 및 동선 맞추기, 돈타령 대목 복습
9/25(금)	· 처음부터 흥부가 박타는 대목까지 무대 위에서 동선짜기
10/6(화)	· 흥부와 놀부 안무 및 동선 맞추기
10/16(금)	· 흥부와 놀부 안무 및 동선 맞추기(소품재정비)
10/20(화)	· 흥부와 놀부 이야기 시연(소품, 음향)
10/23(금)	· 배경, 소품과 음향 갖춰 시연하기(최종 리허설)
10/27(화)	· 흥부와 놀부 무대공연(음향, 의상, 분장, 소품 등)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의미있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고민중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인식
⇒자기계발 프로그램 창극 추진 계획
- 드라마 ‘아씨’ 극작가(임희재)가 지역출신으로 문화예술 지역으로서
공지와 자부심을 갖고 전통문화 이해를 위한 시도 필요
- 지역내 청소년 창극 전문강사 사전 만남을 통해 창극에 대한 소개
및 진행과정, 지도 방법 등에 대해 안내받음
- 코로나19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청소년들이 준비한 창극을 작게나마
공연 할 수 있도록 공연까지 감안하여 창극지도해줄 것을 당부함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생소한 창극을 어떻게 접근시켜야할지 같이
고민하고 시대에 맞게 각색하여 프로그램 구성 요청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창극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 독려
⇒개인별 접촉을 통하여 참여 권유 및 안내
- 청소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창극이라는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는 과정이 어려웠지만 청소년들이 소품(집, 박 등)부터
포스터 제작까지 같이 준비하는 과정에 청소년들간 응집력이 생
기고 자발적 동기 유발이 됨
- 학교 밖 청소년 창극 공연에 지역주민이 분장 재능기부를 하는 등
지역 관심있는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창극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됨

▶ 운영결과

- 학교 밖 청소년들간 서로 소통하고 내면의 끼와 꿈을 발산하여 표현력 증진
- 문화예술 체험을 통하여 학교 밖 또래 청소년들과 연대강화
-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업을 통하여 친밀감이 향상되고 센터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이 강화됨
- 결과중심이 아닌 과정중심의 다양한 경험과 협동학습을 통해 공동체 향상
- 청소년들 사이에 결속력이 생기고 사회성이 향상됨
- 전통예술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널리 알리고 보급하는 계기가 됨

효과성	청소년변화	자기계발	인식개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성취감 ⇒ 긍정적 자아개념	센터 소속감 강화 ⇒ 자립의지	창극 공연을 통한 성공 경험 ⇒ 문화감수성 향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 지역민 관심유도

▶ 향후계획

- 관내 경로당 순회공연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부심 획득 기회 제공
- 청소년들 자신이 창작 주체가 되어 스토리를 만들고 구성하는 창극 프로그램으로 확장하여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을 제공
- 학교 밖 청소년 창극단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우리문화를 알고 지역 문화 보급에 앞장서도록 하며, 활성화하여 우리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
- 학교 밖 청소년과 재학 청소년이 같이 창극 활동에 참여하여 또래간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 교우관계 확장

▶ 사업성과

○ 활동사진



발표회 단체사진 I



발표회 단체사진 II



발표회 박타는 중



발표회 돈타령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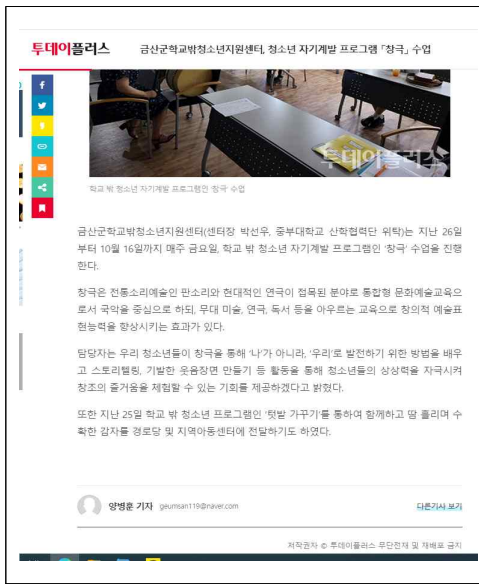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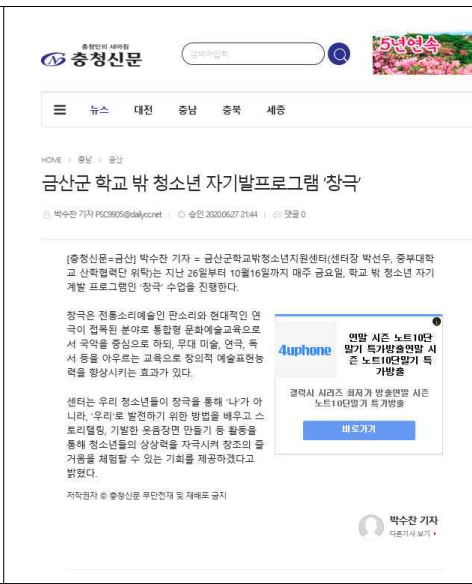
관객(참석자)과 함께 진도아리랑



흥부가 놀부에게 혼나는 중

○ 보도자료

 <p>중부매일 금산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창극' 수업 진행</p> <p>김영미 기자 2020.06.28 13:08 댓글 0</p> <p>핀소리·연극으로 아나지는 청소년들</p> <p>금산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박선우, 중부대학교 신학협력단 위탁)가 청소년을 위한 창극 수업을 진행했다.</p> <p>센터는 지난 26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기 계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p> <p>핀소리와 연극을 접목한 창극은 국악과 무대 미술, 연극, 독서 등을 통합적으로 교육해 창의적인 예술 표현 능력을 향상시켜준다.</p> <p>센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창극을 통해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방법을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p> <p>김영미 기자 gyo@jbsnews.com 지역문화팀 운영책임자 및 재테크팀 기자</p>	 <p>중도일보</p> <p>뉴스 채널 편집 보도 시사 문화 생활 건강 스포츠 정치 부동산</p> <p>전국 강원 대전 대전 대전 대전 대전 대전 대전 대전 대전 대전 대전 대전 대전 대전</p> <p>전국 강원 대전 대전 대전 대전 대전 대전 대전 대전 대전 대전 대전 대전 대전</p> <p>학교 밖 청소년 자기발달 프로그램 '창극' 수업 진행</p> <p>유한 2020-06-29 10:22 유한 2020-06-29 10:22</p> <p>김수환 기자</p> <p>금산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박선우, 중부대학교 신학협력단 위탁)는 지난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매주 금요일,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프로그램인 '창극' 수업을 진행한다.</p> <p>창극은 전통소리예술인 핀소리와 현대적인 연극이 접목된 분야로 통합형 문화예술교육으로서 국악을 중심으로 하되, 무대 미술, 연극, 독서 등을 아우르는 교육으로 창의적 예술표현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p> <p>학교밖청소년센터는 "우리 청소년들이 창극을 통해 '나'가 아니라, '우리'로 발전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스토리텔링, 기발한 웃음감면 만들기 등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상상력을 자극시켜 창조적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p> <p>금산=송유진 기자 cmsy@jbs.com</p> <p>▶ 구독료 1년 10만원 (부가세 별도) 02-863-1800 02-863-1800 02-863-1800</p>
<p>2020. 6. 29. 중부매일 보도</p>	<p>2020. 6. 29. 중도일보 보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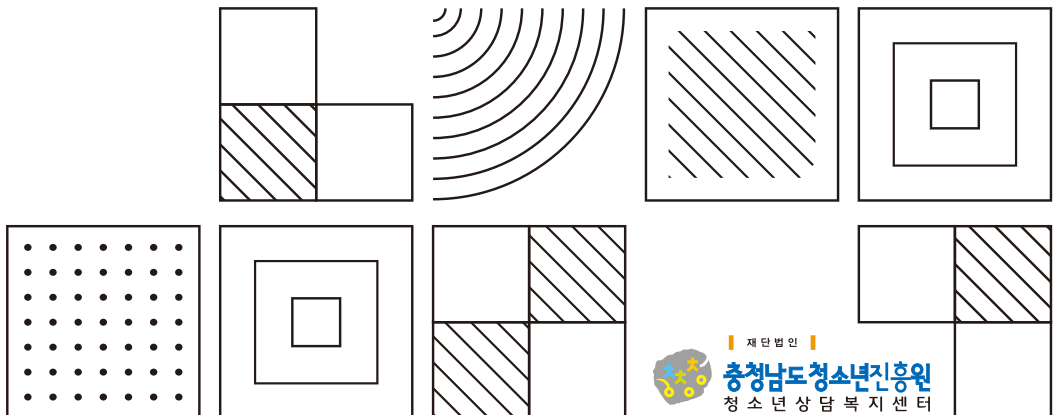
 <p>투데이플러스 금산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자기개발 프로그램 '창극' 수업</p> <p>김수환 기자 gyo@jbsnews.com 2020.06.29 10:22</p> <p>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프로그램 창극 수업</p> <p>금산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박선우, 중부대학교 신학협력단 위탁)는 지난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매주 금요일,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프로그램인 '창극' 수업을 진행한다.</p> <p>창극은 전통소리예술인 핀소리와 현대적인 연극이 접목된 분야로 통합형 문화예술교육으로서 국악을 중심으로 하되, 무대 미술, 연극, 독서 등을 아우르는 교육으로 창의적 예술표현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p> <p>담당자는 우리 청소년들이 창극을 통해 '나'가 아니라, '우리'로 발전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스토리텔링, 기발한 웃음감면 만들기 등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상상력을 자극시켜 창조적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p> <p>또한 지난 25일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인 '햇빛' 가구가를 통하여 함께하고 또 풀리며 수확한 감자를 정로당 및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하기도 하였다.</p> <p>김수환 기자 gyo@jbsnews.com 다문화뉴스</p> <p>지역문화팀 운영책임자 및 재테크팀 기자</p>	 <p>충청신문 02-863-1800</p> <p>HOME > 충남 > 공산</p> <p>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프로그램 '창극'</p> <p>김수환 기자 gyo@jbsnews.com 2020.06.29 10:22</p> <p>[충청신문=공산] 김수환 기자 = 금산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박선우, 중부대학교 신학협력단 위탁)는 지난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매주 금요일,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프로그램인 '창극' 수업을 진행한다.</p> <p>창극은 전통소리예술인 핀소리와 현대적인 연극이 접목된 분야로 통합형 문화예술교육으로서 국악을 중심으로 하되, 무대 미술, 연극, 독서 등을 아우르는 교육으로 창의적 예술표현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p> <p>센터는 우리 청소년들이 창극을 통해 '나'가 아니라, '우리'로 발전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스토리텔링, 기발한 웃음감면 만들기 등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상상력을 자극시켜 창조적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p> <p>지역문화팀 운영책임자 및 재테크팀 기자</p> <p>김수환 기자 gyo@jbsnews.com 다문화뉴스</p>
<p>2020. 6. 29. 투데이 플러스 보도</p>	<p>2020. 6. 29. 충청신문 보도</p>

[우수 프로그램 부문]

우수상

특화 프로그램

“자기계발 프로그램 서핑의 세계”
태안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자기계발 프로그램 “서핑의 세계”

태안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기 간	2020년 9월 ~ 10월
장 소	충남 및 태안군 일원
대 상	학교 밖 청소년

▶ **핵심내용**

- 태안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지형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계절에 적합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느낌
- 제도권 밖으로 나온 학교 밖 청소년의 부족한 성공경험과 학습공백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해결하지 못함
- 학교 밖 청소년은 자기계발에 대한 욕구가 높지만 교육 및 활동의 기회 부족
- 신체활동은 건강한 신체발달의 촉진과 건강한 정신 함양을 도모하는 활동임
- 자기계발 프로그램 ‘서핑의 세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직업에 대한 관심도가 향상됨

▶ **우수사례(프로그램) 선정이유**

- 2019년에 시작하여 연속사업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함
- 학교 밖 청소년들의 부족한 성공경험과 학습공백으로 낮은 자존감과 자기조절능력이 떨어짐
- 신체활동은 신체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침
- 자기계발의 욕구가 높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신체활동의 기회제공을 통하여 욕구 해소
- 해양산업 서핑을 통해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전문가 양성의 가능성을 봄

▶ **추진배경**

- 태안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지형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려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을 느낌
- 제도권 밖으로 나온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부족한 성공경험과 학습 공백이 길어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해결하지 못하며, 심리적·정서적 문제가 나타나게 됨
- 신체활동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과 소중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체력을 향상해 주어 건강한 신체발달의 촉진과 건강한 정신 함양을 통한 전인 교육의 성장을 도모하게 하는 활동임
- 고급 스포츠의 느낌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봄
- 서핑에 대한 성공경험을 통해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하며, 자기조절능력을 키워줄 수 있음
-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심신 도모 및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해양산업인 서핑을 통해 지역 사회 여건에 맞는 전문가 양성의 가능성을 봄

▶ **프로그램 주요내용**

- 2019년 처음 시작하여 올해에도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함
- 프로그램 계획 전 2019년과 동일하게 진행할지 고민하고 장소를 알아 봄
- 태안에 위치한 만리포 해수욕장은 만리포니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미국 캘리포니아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최근 서핑을 하러 타지에서 많이 오는 추세임
- 마니아층이 많은 서핑을 본인이 살고 있는 태안에서의 경험을 통해 지역의 자긍심이 올라가는 계기가 됨
- 취미로 하는 스포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 및 진로와 직업 연계로 이어 짐

○ 세부일정

NO	일자	세부내용
1	9/25(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문강습 • 이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핑의 룰, 안전교육, 서핑매너 • 실습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수 전 준비운동, 패들링, 푸쉬, 테이크 오프자세, 입수 시 주의사항 • 실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이크오프 후 시선 및 자세교정
2	10/6(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수 전 실습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운동, 패들링, 푸쉬업, 테이크 오프자세, 문제점 교정 • 입수 후 실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수 후 패들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패들 자세, 팔 위치 등), 테이크오프 후 시선 및 자세교정 • 자유서핑
3	10/17(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수 전 실습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들, 푸쉬업, 테이크오프 자세 복습 및 교정 • 입수 후 실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들, 테이크오프, 파도 보는 법과 파도 잡는 타이밍 요령, 보드 위에 앉아 보드 돌리기 및 수면 위에서 패들 자세 교정 • 자유서핑
4	10/20(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수 전 실습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들, 푸쉬업, 테이크오프 자세 복습 및 교정 • 입수 후 실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들, 테이크오프, 파도잡기 - 복습 및 교정, 테이크오프 자세문제점 교정 • 자유서핑
5	10/27(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수 전 실습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들, 푸쉬업, 테이크오프 자세 복습 및 교정 • 입수 후 실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회기 때 받았던 패들, 테이크오프, 파도잡기 - 복습 및 교정, 테이크오프 후 시선 어깨 위치 교육, 사이드 라이딩 방법 및 요령 • 자유서핑

▶ 운영결과

- 학교 밖 청소년 9명과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총 5회기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
-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삶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으로 연결하는 계기를 마련 됨
- 서핑을 통해 서있는 자세 및 중심 잡기 등 어려운 도전을 실패의 경험 속에서 성공(성취)으로 연결하여 자긍심이 올라감
- 서핑 후 눈빛과 태도의 변화를 가짐
- 신체활동 및 야외 스포츠인 서핑을 통해 억압과 해방에 대한 감정을 표출 함
- 혼자서 신체활동을 하는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음
- 지역특성을 살려 자신의 직업을 연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

▶ 향후계획

- 코로나19로 인해 8월 달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했는데 9월 달로 밀리게 되어 내년에는 여름에 진행할 계획
- 서핑에 소질이 있고 관심이 청소년에게 국제공인코칭자격증(ISA)를 이수하게 하여 사회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

▶ 사업성과

○ 활동사진



서핑의 세계 단체사진



서핑 이론수업



서핑실습 I



서핑 실습 II

[우수 프로그램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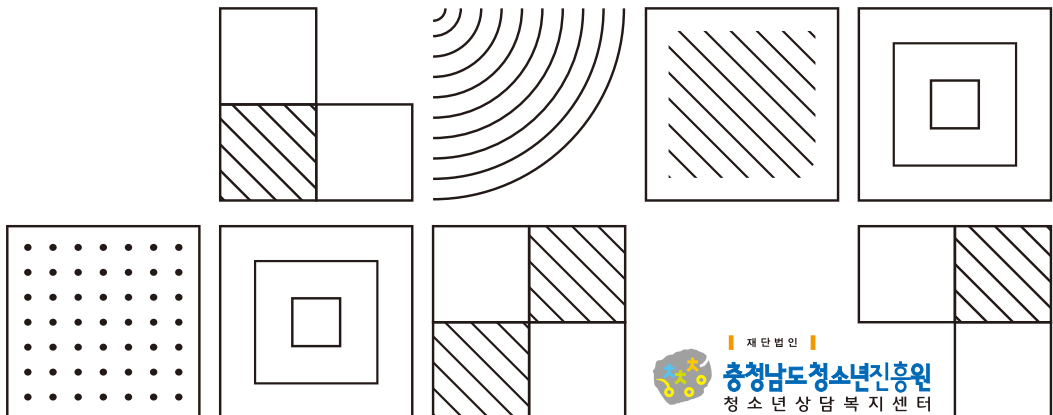
장려상

코로나19 대응

“언택트 꿈드림 1타 강사 빵(드림) 빵(나눔)해요”
아산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특화 프로그램

“보령을 폰에 담다 드림렌즈”
보령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언택트 꿈드림 1타 강사 빵(드림) 빵(나눔)해요

아산시청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기 간	2020년 4월 ~ 현재까지
장 소	아산시청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대 상	학교 밖 청소년 및 꿈드림 이용자

▶ 핵심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학습지원 방법 강구
- 유튜브 채널 ‘아산시꿈드림’을 활용한 검정고시 요약 강의 업로드
- 아산시꿈드림 출신 청소년이 직접 강의안 제작 및 영상 업로드 (수학, 과학, 사회, 한국사 등)
- 특화사업 ‘제과제빵’ 동아리활동 및 ‘빵드림’(빵나눔 봉사활동) 업로드
-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한 눈높이에 맞춘 비대면 사이버강의 제공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 창구 역할

▶ 우수사례(프로그램) 선정이유

- 올해 초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및 프로그램 홍보용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음. 아산시 꿈드림 특화사업인 제과제빵 프로그램 안내 및 다양한 홍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설하였으며, 올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센터가 휴관에 들어가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센터 청소년들의 불안이 급증하게 됨.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센터 청소년들에게 모두 검정고시 인터넷강의를 지원하기에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기에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이 많아 이들에게 학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됨. 홍보채널로 사용하던 ‘아산시꿈드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검정고시대비용 강의를 촬영하고 업로드하여 2020년 제 1회 검정고시 대비 요약 족집게 특강을 제작함. 제작과 강의는 모두 아산시꿈드림을 통해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올해 대학을 입학한 친구들을 멘토로 구성하였음.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을 경험한 우리 친구들이 후배들을 위한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보람을 느꼈다고 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애착을 가지고 제작해 보는 계기가 되었음.

▶ 추진배경

○ 사업 추진계기

- 2020년 2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센터 휴관 및 검정고시 대비 비대면 학습지원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고, 홍보 및 안내를 위해 개설한 유튜브 채널 '아산시꿈드림'을 활용한 학습지원 및 안내의 창구로 활용하게 됨.

○ 사업의 필요성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센터 휴관이 이어지면서 1차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던 아산시 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들이 많아짐. 그들과 전화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기초가 부족하여 인터넷강의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친구들과 멘토 선생님과 대면수업이 아니면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는 친구들이 많아 눈높이에 맞는, 최대한 검정고시에 특화된 요약집 제작과 강의가 필요함을 느끼게 됨. 어떤 이들보다 학교 밖 친구들에 대해 잘 이해하고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우리 꿈드림 친구들 중 멘토를 선별하였고 그들이 대학 신입생이 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관내 거주 중이라 적극적으로 요약집 및 동영상 제작에 참여해 주었음.

○ 목적 및 목적 달성방안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학습지원의 방안으로 유튜브 채널 '아산시 꿈드림'을 활용한 검정고시 요약 강의 제공,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아산시 꿈드림 홍보 및 안내 등으로 활용

▶ 프로그램 주요내용

○ 2020년 1월 13일 유튜브 채널 개설(아산시꿈드림)

- 3월 10일부터 비대면 사이버강의를 맡아줄 아산시꿈드림 출신 청소년 선정 후 과목별 요청
- 3월 20일부터 코로나19 kit 박스와 검정고시 대비 전 과목 요약집 배부 및 발송

- 4월 6일 한국사를 시작으로 과목별 요약 동영상 업로드
- 아산시꿈드림 특화사업 '제과제빵 동아리' 에 대한 활동 동영상 및 빵 나눔 봉사활동 동영상 업로드
- 10월 30일 기준 51개 동영상 업로드

○ 특징

- 검정고시 합격을 위한 비대면 동영상 지원 외 특화사업(제과제빵 동아리)과 봉사활동(빵나눔), 검정고시 수험생을 위한 시험 꿀팁, 태풍 특보 행동요령, 손소독제 제작방법 등 센터 안내창구역할 및 홍보에 적극 활용

▶ 운영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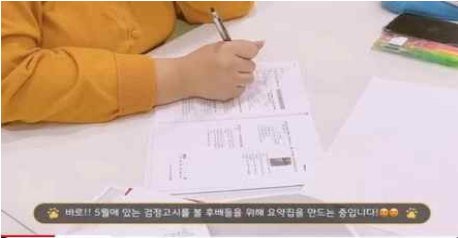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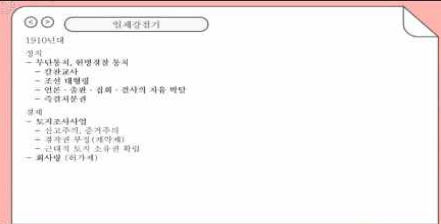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해 검정고시 대비에 소홀할 수 있었던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해 주었고, 이로 인해 학업적 성취 만족도를 올려주었음.
 - 1차 검정고시(5월 23일)에서 74명이 응시(중졸 9명, 고졸 65명)하고, 전체합격 중졸 8명, 고졸 43명, 부분합격 중졸 1명, 고졸 22명의 성과를 내게 됨.
 - 2차 검정고시(8월 22일)에서 64명이 응시(중졸 8명, 고졸 56명)하고, 전체합격 중졸 6명, 고졸 51명, 부분합격 중졸 2명, 고졸 5명의 성과를 달성함.
- 코로나19로 인해 각 지역 꿈드림 센터마다 지원인원 및 성과인원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어 전국적으로 80%로 목표 성과치를 하향조정한 반면 아산시 꿈드림의 경우 2020년 목표인원 대비 113%이상의 지원 인원(목표인원 220명(10월 기준)지원인원 249명), 성과인원은 목표 대비 160%이상을 달성함.(목표인원 79명-(10월 기준) 성과인원으로 실인원 기준 128명 달성함. 코로나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이 어려워지고, 사회진입 성과 및 학업복귀가 어려워졌음을 반영 해볼 때 아산시꿈드림 유튜브 채널 및 학교 밖 청소년 멘토 사이버 강의는 실인원 109명의 검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할 정도로 큰 성과를 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향후계획**

-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고 시험전날까지도 질문에 답해주는 선배 친구들, 그리고 특화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봉사를 나누고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모든 이들을 통해 긍정적 응원과 힘을 받았음. 내년에도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다양한 소통과 지원방안으로 확대할 예정

▶ 사업성과

○ 활동사진

 <p>바로!! 5월에 있는 공강고시를 볼 준비를 위해 요약집을 만드는 중입니다!!</p> <p>설명</p> <p>아산시 꿈드림의 코로나 극복기! 아산시꿈드림 · 조회수 203회 · 2020. 3. 16.</p> <p>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2월 24일부터 3월 22일까지(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T.T) 휴관중인 아산시 꿈드림 센터! 지금 아산시 꿈드림 센터 안에서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짧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p>	 <p>1910년대 정치 - 무신정치, 한명재정 통치 - 갑방정치 - 조선 태황제 - 일본-중국-일본-영국의 자유 백당 - 독립전쟁 경제 - 도시조사사업 - 신교주지, 중개주지 - 물결을 부릴때까지 - 근대적 도시 소유권 확립 - 회사령 (하가네)</p> <p>답글</p> <p>아연주 · 5개월 전 감사합니다 이 영상들만 보고 덕분에 아무것도 몰랐던 저가 만점을 맞았어요ㅎㅎ</p> <p>공개 답글 추가...</p> <p>아산시꿈드림 · 5개월 전 와우~~~ 축하드려요^^</p>
<p>꿈드림 선배의 요약본 제작 과정</p>	<p>보람 가득 주는 댓글</p>

 <p>답글</p> <p>아연주 · 5개월 전 선생님 과학도 올려주시면 안되나요? 혼자 공부하는데 너무 어려워요T.T 부탁드립니다</p> <p>공개 답글 추가...</p> <p>아산시꿈드림 · 5개월 전 꿈드림 선배가 업뎃 준비중입니다~</p>	<p>댓글</p> <p>하이라이트 댓글</p> <p>보람 가득 귀위 · 14분 전 수고많으심뵙.</p> <p>dark · 3시간 전 잘 봤어요^^</p> <p>하안송용치TV · 3시간 전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북 받으실거예요!!</p> <p>문교수중국어 · 4시간 전 좋은 일을 하는 아산시 화이팅. 유희까지도 대박 나세요.</p> <p>아슬아슬 · 1시간 전 아름다운 영상 이네요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 응원 함께요 화이팅 하세요~~</p> <p>With nature · 49분 전 정성껏 만든 빵을 나눔까지... 넘 좋아요.</p>
<p>소통하는 '아산시꿈드림' 채널</p>	<p>빵나눔 봉사 동영상에 달린 댓글들</p>

▶ 사업성과

○ 보도자료



보령을 폰에 담다 “드림렌즈”

보령시청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기 간	2020년 6월 ~ 10월
장 소	충남 대천 사진관 및 보령시 9경 관광명소
대 상	학교 밖 청소년(8명)

▶ 핵심내용

-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후 소속감 및 또래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함. 이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큼 → 이로 인해 다양한 여가활동 및 사회성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들의 요구와 필요성이 보임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성 훈련이 필요한 동아리 활동을 준비함 (청소년들의 요구조사 및 회의를 통하여 사진동아리프로그램을 계획)
- 사진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진이론 및 편집기술을 익혀 문화 활동, 직업체험, 사회진입, 취업 지원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
- 보령시 지자체, 보령시 청소년지원센터에 사진전시회 및 포토북 발간(예정)

▶ 우수사례(프로그램) 선정이유

- 사진동아리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소속감 및 또래 관계 형성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게 충족시킴
- 추후 사진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진전시회 및 어울림마당 체험 부스에 사진 전시를 통하여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센터홍보 효과
- 지역자원 보령 9경 플러스라는 관광명소를 활용해 청소년들이 직접 보령 9경을 돌아다니면서 사진 촬영을 통해 물적 및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체험을 하고 지역 인프라 구축

▶ 추진배경

-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자기계발프로그램을 계획하던 도중 사진동아리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됨
- 사진동아리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통하여 자존감 및 성취감 향상 또는 대인관계 증진 목적에 있음
→ 단체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 보령시 내에 있는 사진관을 운영하고 계신 사진작가님을 섭외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진 촬영 및 편집기술을 배우고 보령9경 관광명소를 돌아다니며 청소년들이 직접 출사를 다니는 자기주도형 프로그램 진행

▶ 프로그램 주요내용

- 프로그램 개요
 - 기 간 : 2020. 06. 24 ~ 10. 31
/ 매주 수요일 13:00 ~ 15:00 (총15회기 진행)
 - 인 원 : 학교 밖 청소년 8명
 - 장 소 : 대천사진관 & 보령9경관광명소
※ 8경 냉풍욕장 및 6경 외연도는 코로나19로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청소역, 보령전통시장으로 대체
 - 내 용 : 학교 밖 청소년 사진동아리 프로그램
 - 세부일정

NO	날 짜	세부내용	비 고
1	6/24(수)	이론수업 및 사진촬영·편집기술 습득	
2	7/1(수)	1경 대천해수욕장 출사	
3	7/8(수)	모임 및 사진편집	
4	7/15(수)	4경 개화에술공원 출사	
5	7/22(수)	모임 및 사진편집	
6	7/29(수)	3경 성주산자연휴양림, 9경 보령댐 출사	
7	8/5(수)	모임 및 사진편집	
8	8/12(수)	오천 충청수영성&청소역 출사	
9	8/19(수)	5경 무창포해수욕장 출사	

10	9/2(수)	모임 및 사진편집	
11	9/18(금)	2경 죽도 상화원 출사	
12	9/23(수)	모임 및 사진편집	
13	10/13(화)	보령전통시장 출사	
14	10/21(수)	모임 및 사진편집	
15	10/28(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마무리	

▶ **운영결과**






- 사회진입 성과 인원 : 8명(중복포함)
- 학교 밖 청소년 총 8명이 참여하였고 OT 및 수료식을 포함하여 15회기의 모임을 가졌으며, 7번의 현장 촬영과 7번의 사진편집, 2번의 어울림 마당 행사를 진행 및 전시회를 운영하였음

▶ **향후계획**

- 보령시청에 사진전시회를 개최할 예정
- 포토북 발간(예정)을 통하여 지역 유관 기관 및 타 지역에 보령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홍보 예정(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및 센터홍보 효과)
- 동아리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진과 관련하여 직업 및 대학 입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

▶ 사업성과

○ 활동사진

	
<p>사전 오리엔테이션 (강사와의 첫만남)</p>	<p>출사 및 프로그램 진행</p>
	
<p>사진편집 과정 배우기</p>	<p>사진 촬영 과제</p>
	
<p>어울림마당 전시회</p>	<p>사진 촬영</p>

○참여자 소감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꿈드림을 통해 여러가지
경험 그리고 새로운 친구
들도 사귀고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 Y N -

사진동아리 하면서 즐겁어

꿈드림 화이팅

- 이 -

보령은 좋게 많고
꿈드림 마음껏 하고
함께 찍기 의미있던 그날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드림
강

소감

보령 꿈드림 드림렌즈참여소감

너무 좋은 경험이
생긴 것 같다
꿈드림 친구
피어싱
-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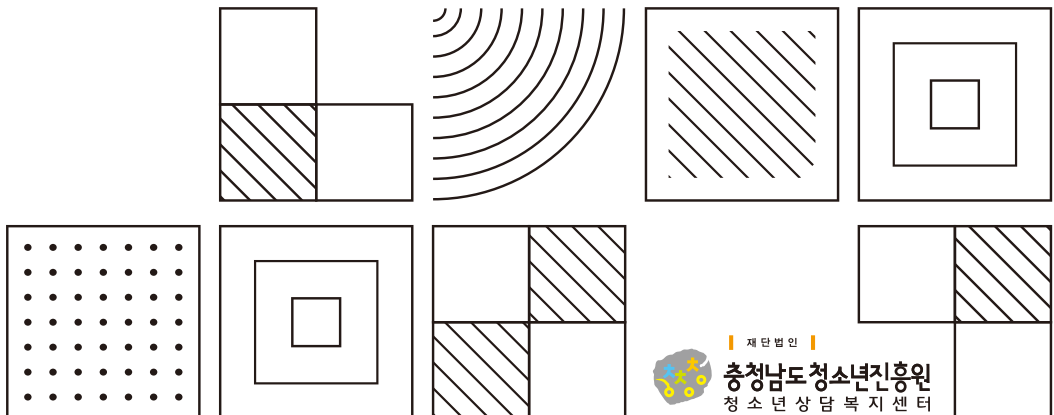
너무 즐겁고 알찬
시간이었다
보령 꿈드림 화이팅♡

- 중 -

청소년·멘토 우수사례 부문

주최 :  충청남도

주관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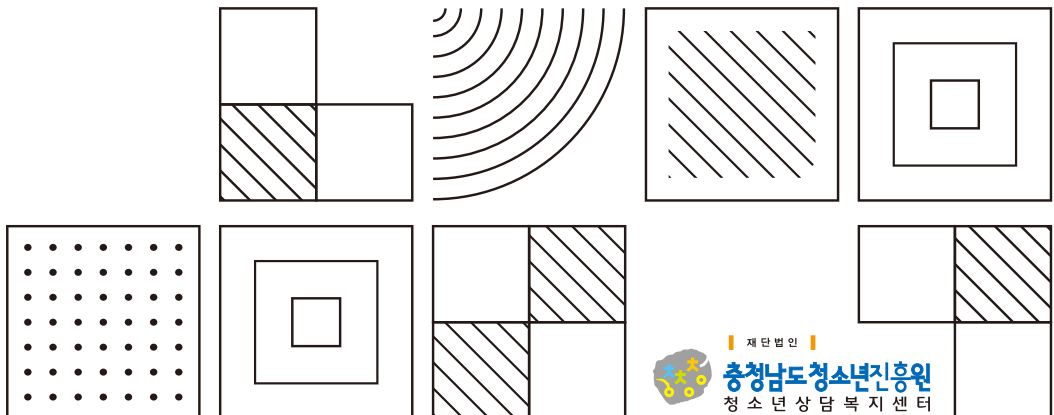
[청소년·멘토 우수사례 부문]

최 우수 상

청소년 사례

“양아치, 그리고 나”

보령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양아치, 그리고 나

보령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참여기간	2018년 9월 ~ 현재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드림 청소년단 - 바리스타 자격증반 - 자기계발 프로그램(드림렌즈, 가족공예) - 직업체험 프로그램 - 검정고시 학습반 - 서포터즈단 활동 - 멘토링 프로그램

나는 흔히 말하는 양아치였다. 또래 친구들을 괴롭혔던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고 나도 다른 이들을 괴롭히며 지냈다. 중학교 운동선수였던 나는 수상경력도 준수했고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런 나에게 시험 예선 탈락이라는 시련이 찾아왔고 이로 인해 큰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다. 그 날부터 나는 운동을 안 한다며 도망다니고,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일진’ 무리에 섞여 청소년이 해서는 안 될 담배와 술, 그리고 밤늦게까지 놀고 싶어 외박 한 번 해보지 않았던 나는 가출을 하기도 하였다. 힘없는 아이들을 괴롭히며 타지에 나가 다른 고교 선배들과 싸우기 시작하며 재판과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학교폭력위원회, 보호관찰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을 보던 부모님은 점점 나를 미워하시다 못해 ‘기피’하셨고 내가 무엇을 하던 도와주기보단 ‘스스로 벌인 일은 스스로 거둬내라.’라는 말씀만 하셨다.

문제의 나날은 반복되었고 운동을 관두며 고등학교 진학은 자연스럽게 어려워졌다. 어중간한 고등학교 입학할 하는 것보다는 안 가는 것이

났다는 판단을 했고 부모님을 설득하여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다. 매일 등하교를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내가 학교에 안 가게 되니 처음에는 기뻐했다. 자유롭게 늦게까지 잘 수 있어서 그리고 친구들과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 나가기만 하면 되니 너무 편하고 기뻐했다. 이런 하루가 나에게서는 자유인 것 같았다.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무렵, 나는 이유 없이 단순한 이간질로 인해 이미지가 나빠졌고 친구들과 선배들 그리고 가족들이 나를 ‘쓰레기’와 같은 취급을 하였다. 난생처음 느껴보는 억울함 그리고 분노, 감정의 총돌이 일어나 ‘자살 총동’이라는 감정에 휘둘렸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 때 문득 든 생각은 내가 괴롭히던 아이들은 이보다 더 지옥 같았겠지? 내가 지금 벌 받는 건가.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말이 떠올랐다. 나쁜 짓을 하면 돌려받는다고 나는 스스로 내가 벌 받는다고 합리화를 하면서 ‘아 그러면 나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더는 살아갈 가치가 없다.’ 또 ‘내가 죽으면 내가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친구들이 기뻐하고 부모님도 힘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부모님께 메시지로 ‘불효자인 아들은 먼저 죽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죄송하고 저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니 죽거든 묻지도 울지도 말아주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자살을 결심하였다. 무서운 마음을 진정시키고 목을 맨 상태에서 줄을 땀기려던 무렵, 문밖에서 ‘똑똑’ 하는 소리와 함께 경찰관분들이 학생 지금 나오라고 부모님이 밖에서 기다리신다고 안 나오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나는 겁이 나서 줄을 당겼고 그 후에 기억은 안 나지만, 경찰관분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심폐소생을 하고 병원으로 이송시켰다고 부모님이 말씀하셨다. 병실에서 일어나 온통 흰색만 보이던 그 벽들이 생생하다.

내가 왜 살아있지 라는 생각을 하며 고개를 돌렸을 때는 부모님이 무릎 꿇고 옆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 모습을 보자 눈물이 계속 흘렀다. 내가 정신을 차린 것을 아신 부모님은 한없이 눈물을 흘리시고 두 번 다시는 그러지 말고 오해는 말로 풀라며 나를 위안해주시고 나를 이간질했던 그 친구들을 경찰에 신고되어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정말 마음을 다잡고 엄마를 도와드리고자 집안일도 하고 가족과 외출도 해보고 그런 하루를 보내며 다시 부모님과 유대관계를 쌓았고

다시 신뢰를 쌓았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홀로 길을 걷다 우연히 들어
봤던 꿈드림 센터를 목격하였고, 고등학교 진학을 안 했으니 ‘검정고시’
라도 보자는 부모님의 말씀이 떠올라 스스로 센터에 방문하게 되었다.

낯선 공간인 꿈드림 센터에서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나의 마음을 솔직
하게 털어놓았다. 사실 친구들과의 관계와 지난 나의 과거에 대한 문제들
말고 나에겐 큰 고민이 있었다. 바로 부모님께서 몸이 매우 편찮으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혼자
공공 앞던 나에게 꿈드림센터는 ‘한 줄기 빛’이 내려온 것 같았다. 모든
말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웠고 항상 내 말만 옳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방법과 ‘자중, 배려, 존중’에 대한 배움을
주셨다. 사실 처음부터 모든 게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마음에 새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그러나 꿈드림 선생님은 지난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주셨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몇 번이고 되새겨주셨다. 솔직한 마음으로 나
같은 청소년을 받아주기 어려우셨을 텐데 몇 번이고 전화하시며 센터에
나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유도해주셨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며 지금의 나는 선생님들의 이쁨을 받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옛날에는 연락이 오면 귀찮았던
감정이 먼저였지만 지금은 ‘재밌겠다.’ 또는 ‘배움’이 있는지부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격증 취득반, 자기계발 프로그램, 꿈드림 청소년단, 검정
고시 학습반, 그리고 보령시 꿈드림센터 대표하는 청소년 서포터즈 활동
등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다. 아직은 서툴지만 꿈드림 센터
활동을 통해 조금씩 나의 미래를 그려가며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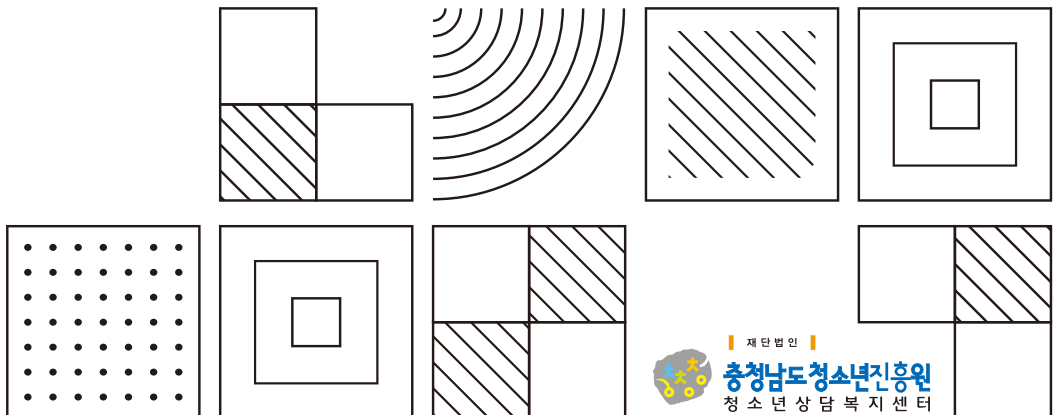
솔직히 나의 과거는 한없이 어둡고 불안정했다. 그러나 우연히 찾아
오게 된 꿈드림 센터에서 선생님과 깊은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
하며 지금의 나는 ‘양아치’에서 벗어나 나는 ‘나’에게 가까워졌다.

[청소년·멘토 우수사례 부문]

우 수 상

청소년 사례

“꿈을 믿어주는 곳, 꿈드림”
서천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꿈을 믿어주는 곳, 꿈드림!

서천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참여기간	2018년 11월 ~ 현재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드림 프로그램 - 스마트교실(검정고시, 수능준비) - 자원봉사 동아리 '자몽'활동 - 2019년 꿈드림 청소년단 활동

저희 집은 IMF시기 어려워진 집 중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은 많은 것을 잃고 시골로 내려오시게 되셨고 저와 제 동생을 낳으셨습니다. 그 과정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골에 내려와 제가 태어나고, 동생이 태어나고, 제가 치원에 입학하는 시기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순조로운 상황이었으나 부모님께서는 두 번째 시련이 닥쳤습니다. 제 3살 어린 남동생이 자폐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어린 마음에 그 것이 그렇게 힘들고 고된 일이 될 줄 몰랐고 순하게 잠든 동생의 볼을 쓰다듬을 정도의 애정과 동생에 대한 풋내 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게도 어린 동생을 등에 업고 동네를 돌아다니길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남동생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고, 정인지체 자폐1급으로 판정이 나며 어머니나 복지관 선생님들과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집에 두지 않고 학교 아닌 주말같은 때에는 무조건 차비를 주고 읍내 도서관으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학원과 같은 교육을 시키지 못하니 책이라도 읽게 해주시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시절에는 이것저것 잡다하게 아는 것이 많았던 아이 취급을 받곤 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어려워진 것은 동생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 때부터 동생은 강한 폭력성을 보이고, 심지어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을 던져서 부시고 볼펜이나 연필 자루로 자기 다리를 찍어서 피를 보는 일도 서슴치 않고는 하게 되었습니다. 동급생을 꼬집고 할퀴었다는 말에 부모님이 몇 번이나 죄송하는 인사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강박적으로 아이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한약이나 교육에 매달리시기 시작했고 어느덧 동생은 중학생,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기숙사형 여고에 다니기 시작한 저는 2주에 한번 나와 집에서 잠을 자는게 전부인 삶을 살게 되었고 가족의 어려움보다는 제 학교 생활쪽에 신경을 더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끔 나와서 보기에 집 안의 상태는 심각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동생에게 자주 머리채가 잡혀서 머리카락을 점점 짧게 자르시다가 종래에는 머리를 아주 밀어버리셨고 2주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세간살이가 다 부셔져 있었습니다.

유리나 사기로 된 그릇은 대부분 깨져서 버려졌고, 세면대가 어느 날은 없어져 있었고, 에어컨도 부셔져 있었고, 거울은 늘 그렇듯 금이 가서 일부만 남아있었습니다. 사람만 살지 않으면 폐가가 따로 없는 집에서 가족은 그렇게 겨우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게 너무 답답했는지 어머니는 저희와 상의도 없이 훌쩍 월세 방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월세 방으로 옮기고 나서 가족은 자주 다녔습니다. 상황적인 문제와 마음적인 입장이 부딪쳐서 싸움을 지속적으로 벌여졌고 예정된 대로의 문제점들이 일어났습니다. 동생의 멈추지 않는 고성방가에 같은 건물 사람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이사 와서 멀쩡했던 세간살이는 다시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2에서 고3의 시기 집 안에서는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동생을 시설에 맡기기도 했었는데 그 곳에서 폭력성 같은 것을 제어 하느라 오랜 기간 심하게 약을 썼는지 부모님이 놀라서 다시 집으로 데려왔을 때 동생의 눈동자는 힘이 풀려있었고 머리와 두피는 다 벗겨지고 병색 짙은 환자처럼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괜찮라며 놀랄 정도였죠. 그것을 보고 어머니는 깊은 상처를 입으셨는지 다시는 남동생을 남의 손에 안 맡기려고 했었고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남동생은 몇 주 동안 회복이 되고 점차 원래의 성격을 다시 찾아서 다시 반복적으로 하던 행동들을 했고 집 안은 다시 엉망이었습니다. 고3인 저는 가족들이 어떻게 굶아가고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부모님이 자퇴 이야기를 꺼내셨고, 저는 상황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집의 수입원도 없는 상태였고, 많은게 어려운 상태였죠. 저는 검정고시를 보고 조금 늦게 대학을 가기로 하고 자퇴를 결정했습니다.

일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공부도 같이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정도의 돈은 가족에게 보내주고 제 생활비나 대학교 때 나갈 돈들을 모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장 일을 했었고 자활일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를 손에 놓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닥치는 일을 처리하기 급급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자꾸만 꺾어나갔고 제 삶이 희망 없이 비좁아져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꿈드림 센터는 그시기에 만난 제 탈출구였습니다. 당시 자활에서 먼저 일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꿈드림 센터에 네 이야기를 했더니 같이 와보라고 하신다며 저를 꿈드림 센터와 이어주었고 그게 제가 처음으로 서천 꿈드림 센터를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저는 학교가 주는 소속감이 그리웠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같이 상의해주는 선생님들이 계신다는 것에 꿈드림 센터에 많은 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래의 아이들을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일로 무뎠던 정신에 다시 자극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래의 아이들을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일로 무뎠던 정신에 다시 자극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공부를 하게 됐고 센터에서 주는 검정고시 책을 받아서 풀고 센터에 마련된 공부방에서 동생의 소음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다른 애들과 함께 시험장에 가서 검정고시를 보는 것까지도 제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도움을 받아 이를 수 있었습니다. 멈춰있던 학업의 시간이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었고 나름대로 삶에 대한 희망이 커지던 과정이었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하고는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

까지 세세하게 도와주시고 수시원서를 넣는 것도 많이 같이 상의를 해주셨습니다.

언젠가는 다른 센터와 연계되어 1박2일의 여행도 다녀왔고 향초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거나 수제 공책을 만들어 노인정분들께 드리는 봉사 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체험들이 제게는 일상과 분리된 무언가를 만들고 즐기며 할 수 있는 휴식의 시간들이기도 해서 시간이 나면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뇌사에 빠지신 날 응급실에서 멍하게 앉아 있다가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더니 아침에 병원 앞에 와주셔서 절 끌어안아 주셨던게 생각이 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온 마음이 다 꺾여서 가루가 된 것같은 때 동생을 근처 시설에 맡기고 사람답게 살지 못했을 때도 많은 힘이 되어주신 선생님들을 기억합니다.

저를 살게 했던 그 도움을 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의 수능을 잘 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수시를 넣었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환경공학부에 들어가 적응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 꿈드림 센터에서의 수료식을 마쳤지만 여전히 선생님들을 제가 어려울 때 의논을 해주시고는 합니다.

대학에 합격하고도, 제 삶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 말고 타인도 누구나 원하는 것에 도달하고도 시작되는 난관을 겪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난관은 늘 삶의 곁에 있지만, 꿈드림은 제게 도움도 함께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지난 시간이 힘들어도 자식을 사랑해서 버틸 수 있었다는 말처럼. 결국 사람을 버티게 하는 것은 자신보다는 타인일 때가 많습니다. 제게 가장 고마운 타인인 꿈드림 센터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청소년·멘토 우수사례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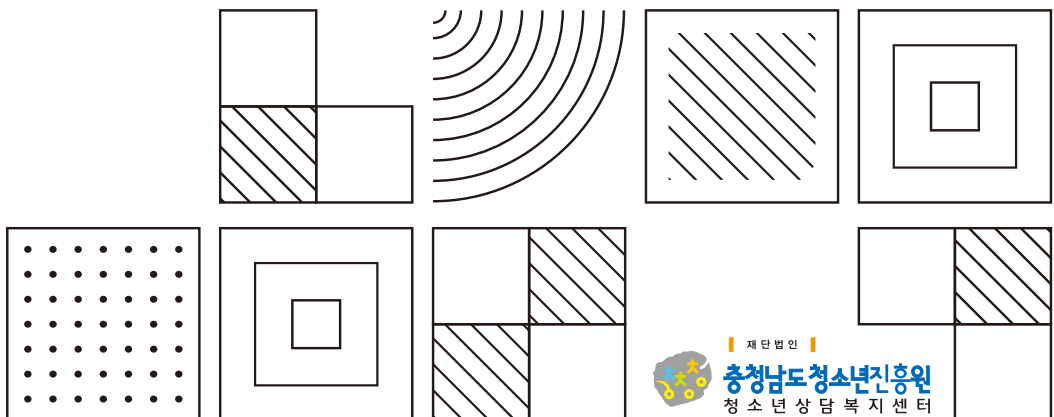
장려상

멘토사례

“너희들의 꿈, 그리고 나의 꿈”
공주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사례

“새로운 나를 찾아서”
서산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너희들의 꿈, 그리고 나의 꿈

공주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참여기간	2020년 1월 ~ 현재
활동내용	- 학습지원(검정고시 대비반 학습지원)

- 내 인생을 바꾼 은사님

사범대에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생을 바꾼 은사님을 만난 경험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울면서 정말 혼란스러운 사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영향 때문일까, 성실한 학생이라는 칭찬을 들으며 졸업한 초등학교 때와는 달리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도 워낙 하지 않아 살면서 받아본 적이 없는 시험점수를 받았고, 친구들과 자주 다투어 선생님께 혼나는 일이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상이었습니다.

2학년에 진급할 즈음,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선생님들이 문제아들을 한 반에 모아두었다! 아니나 다를까 평소 불량스러운 태도 때문에 저도 그 문제아들의 학급인 2학년 4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의 1년은 저에게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저희 반 친구들이 3학년이 될 즈음에는 문제아라는 낙인과는 멀어졌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사님과의 생활에서 일체의 체벌도 없었지만, 매서운 몽둥이 질에도 바뀌지 않던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의 따뜻한 관심과 진심어린 한마디에 변화하기 시작했고, 방과 후에 담임 선생님과 함께했던 공부시간이 앞으로의 학습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때 사람 한 명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느꼈고, 저 또한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은사님을 만난 이후로 그리고 꿈이 생긴 이후로 저의 삶은 변화했고, 그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그렇게 꿈드림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다

꿈드림에 멘토로 지원하게 된 이유는 학과 선배의 소개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혹시 교육봉사 시간을 다 채웠냐며 권한 일이 공주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 대비반 학습 멘토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방학 동안 자택인 수원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공주까지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일이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이를 모르고 있던 선배는 꿈드림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제 마음이 크게 움직였고 검정고시 대비반 사회 학습 멘토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할 거였으면서 왜 미루었냐는 선배의 말에 저의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돌아온 답은 이랬습니다. ‘미친놈’

- 사명감을 품게 되다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첫 시간이니 수업보다는 가볍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달라는 담당 선생님의 말씀에 가벼운 마음으로 꿈드림 센터로 향했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앞에 섰을 때 저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때 제 앞에 14명 정도의 아이들이 앉아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눈에서 느껴지는 열의에서 아이들 각자의 무한한 가능성을 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첫 시간을 계기로 마음을 완전히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단지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교육봉사에서 이젠 사명감으로...

- 아이들을 위한 교재를 만들기 시작하다

이날 집으로 돌아와 검정고시 교재와 몇 년의 기출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다음 수업시간이 되었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쉽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문제까지 틀리는 아이들을 보며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밤을 새워 공부했음에도 너무나 낮은 점수에 눈물을 쏟았던 제 모습과 허리 숙여 눈높이를 맞춰주시던 따뜻했던 은사님의 모습...

그때부터 저는 아이들을 위한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첫째, 아이들이 오랜 학습결손을 메울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과 상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할 것! 둘째, 최대한 아이들의 공부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 마지막으로, 사회과목 특성 상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이야기처럼 재미 있을 것! 미련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2시간의 수업을 위해 며칠을 고민하고 자료를 찾아 결국 아이들에게 줄 교재를 완성하였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수업에 몰입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느껴졌고,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의 수업이 제일 재미있다는 아이들의 말 한마디는 지금까지의 고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학과 프린트실에서 꿈드림 아이들에게 줄 수십 장의 학습지를 출력하면서 저는 학과 친구들과 사이에서 열정맨이자 미친놈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업이 항상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해야만 했고 검정고시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의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카카오 라이브톡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은 색다른 수업방법으로 다시 한번 아이들의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라이브톡 수업의 약점을 보완하고, 과목 특성 상 사진자료가 많은 사회 수업을 위해 시도해본 화상회의를 활용한 수업, 유튜브 수업 등은 저와 아이들에게 모두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꼭 저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은 2020년이었습니다.

- 너희들의 꿈, 그리고 나의 꿈

가꿈은 이렇게 교육봉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순탄치만은 않았던 저의 학창시절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실하고 모범적인 생활로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반대로 요주의인물이 되어 많이 혼나고 미움 받았던 경험이 있었고, 오랜 학습결손 때문에 다른 친구들을 따라가기 어려워 눈물을 쏟은 경험이 있었기에 더욱 꿈드림 아이들에게 제 마음이 움직였고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요리사, 프로그래머, 선생님, 동물사육사, 배우, 뮤지션 등등 각자의 꿈을 품을 아이들 앞에서 검정고시 사회 수업을 하며, 나의 은사님이 내게 그랬듯 아이들이 꿈에 다가가는 과정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은사님과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저의 꿈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에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벅차게 뛰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를 찾아서

서산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참여기간	2019년 4월 ~ 현재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계발프로그램 바리스타 과정 참여 - 자격증취득과정 컴퓨터,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 검정고시 대비반 스마트 교실 참여 - 진로직업체험‘플로리스트 과정’참여 - 2019년 검정고시 합격, 2020년 재시험 2021년 대학학력고사 준비 -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1:1대학입시 컨설팅 참여

학교 자퇴를 결심하게 되고 망설임 없이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자퇴하기 전에 자퇴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까? 자퇴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들이 하루종일 저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자퇴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망설여지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선택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나를 되돌아보기도 했고 지난날의 시간을 머릿속에 되새겼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언제였을까? 과거의 나 자신은 행복했었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와 꿈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저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마침내 자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너무나 위태로웠고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겁쟁이였는지도 모릅니다. 과거라는 늪에 빠져서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런 저 자신이 싫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저 자신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저 자신을 자기가 좋아해 주지 않으면 그 누가 좋아해 주겠냐며 마음속으로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의 발목을 잡았던 과거라는 늪에서 빠져나와 언젠가는 그 과거조차도 마음 한구석에 편히 놓아둘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노력하기로 그때의 제 선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퇴하고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때의 저의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퇴하고 난 후 며칠 동안은 하루하루가 적응이 안 되기도 했지만, 학교에 다닐 때 보다 마음이 한결 편하고 웃음 또한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시간 동안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읽기도 하고 검정고시 준비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여전히 과거라는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는 못했지만, 예전보다는 그 늪에서 조금은 저 자신이 빠져 나온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 청소년지원센터에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검정고시 공부뿐만이 아닌 꿈을 찾고 싶었습니다.

제일 처음 바리스타 자격증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에스프레소, 카페라떼, 아메리카노, 카페오레를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 선생님이 설명하신 대로 차례차례 만들어나갔습니다.

매일 바리스타 학원에 가서 커피를 만드는 것이 즐거웠고 모든 수업이 끝날 때는 좀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끝으로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되었고 좀 긴장이 됐지만 평소의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커피를 만들었고 그 결과 높은 점수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집에서 책을 읽거나 공부만 했던 제게 바리스타 학원에 다니면서 했던 활동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정말 잊을 수 없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는 플로리스트 직업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꽃은 원래부터 정말 좋아했습니다. 특히 리시안셔스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꽃말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제각기 생김새가 다른 꽃들과 그 안에 담긴 꽃말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생김새나 이름이 다른 것처럼 꽃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제각기 다른 꽃들을 보고 향기를 맡을 때면 소소한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 플로리스트 직업 체험의 기회는 더 뜻 깊었습니다. 플로리스트 직업 체험에서는 꽃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꽃들을 이용해서 저의 마음이 가는 대로 꽃들을 배치했습니다. 그 작업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다양한 색의 꽃들과 그런 꽃들에서 풍겨오는 향기가 저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했던 플로리스트 직업 체험이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 저는 검정고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연도별 기출 문제를 풀고 인터넷 강의도 듣고 틀린 문제들은 공책에 써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18살 첫 검정고시를 보았고 점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왠지 아쉬운 마음에 결국에는 재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이번 역시 전보다는 성적이 올랐지만 제가 만족할 만한 점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검정고시를 보기로 결심 했고 그렇게 저는 19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 보다 검정고시를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히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가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책 출간이라는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원래부터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긴 했지만, 책을 출간하게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제가 과연 잘 쓸 수 있을까?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글을 써 내려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로 인해서 처음에는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결국에 저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글을 쓰게 되었을 때 모든 게 처음이라서 너무 서툴렀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좀 막막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쓰고 싶은 에피소드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청소년 성장 소설로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느꼈던 감정들과 꿈꾸던 학교생활에 대한 저의 희망들을 글로 써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새 학기, 소풍, 운동회, 친구들과의 관계 등, 청소년이 공감할 수 있으면서도 제가 한편으로는 학교를 다니길 바란 제 소망들을 가득 담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글을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인 시대의 배경과 등장인물 한명 한 명에 대한 정보들을 공책에 써 내려가고 등장인물들의 이름, 나이, 외모, 성격, 취미,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습관, 과거의 일 등등 디테일한 설정과 정보들을 공책에 적어 놓습니다. 그렇게 설정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흰색의 종이에 검은색의 글자들을 차곡차곡 써 내려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듯이 조용한 새벽 깜깜한 밤 하늘 아래 오직 제가 컴퓨터 타자를 치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몇 시간 동안 글을 써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의 에피소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약 2달 간 저는 매일 하루 평균 3시간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5000자 이상의 글들을 써 내려갔습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는 경험은 낯설고 설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앞길이 막막했던 때와는 다르게 어느새 글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길고 길었던 여정이었습니다. 언제 다 책을 완성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던 때의 저는 이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층 더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과거의 나약한 저 자신을 떠올리기도 했고 미래의 저 자신의 모습들에 대해서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할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그 해답은 19살이 되고 드디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쪽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책을 쓰게 되면서 힘들기는 했지만 그만큼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센터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하며 제가 글을 쓰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자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그런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의 새로운 꿈이 생기게 된 계기는 제가 소설을 출간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소설을 직접 써보면서 글을 쓰는 즐거움과 누군가 제 글을 읽어준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글을 쓰고 그것을 많은 사람이 읽어준다면 그것이 저의 행복한 꿈이자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밝고 따듯한 빛을 받는 게 아닌 다른 청소년들에게 그 빛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과거라는 나의 늪에서 벗어나 나의 마음 한구석에 편안하게 잠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한 발자국 씩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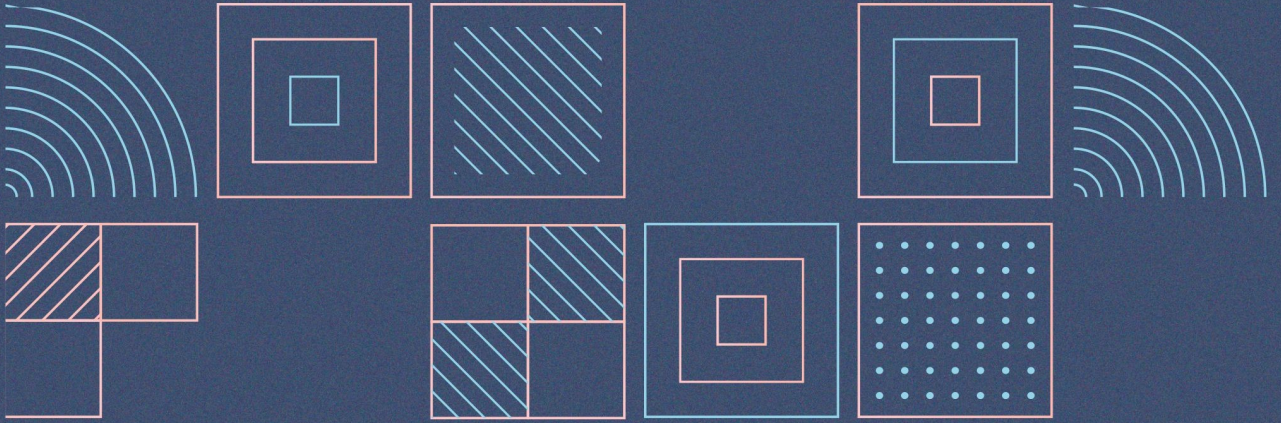
**2020년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우수사례(프로그램)집**

인 쇄 2020년 12월

발 행 2020년 12월

발행인 박영의

발행처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100)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진암빌딩 3·4층
(31100)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81, 대연빌딩 3층 꿈드림
Tel.(041)554-2130 / Fax.(041)556-8704
<http://cnyouth.or.kr>



**2020년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우수사례(프로그램)집**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100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진암빌딩 4층
31100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81, 대연빌딩 3층 꿈드림
Tel.(041)554-2130 Fax.(041)556-8704
<http://cnyouth.or.kr>

비매품 *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